

“내 일자리 어디에” 10대부터 60대까지 1000명 몰렸다

30일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남 일자리박람회 가보니

도·지자체·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등 11곳 공동 주관 기업 홍보·취업 컨설팅·현장채용관 등 다양한 부스 마련 구직·구인·진로탐방...28개 지역 기업 148명 현장 면접

‘내게 맞는 일자리는 어디에 있을까’ 취업을 희망하는 취준생들의 선택 기회를 넓히고 현장에서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다.

지난 30일 오후 1시 ‘2025 상반기 전남일자리박람회’가 열린 목포시 실내체육관은 일자리를 알아보고 취업 정보를 얻기 위해 모인 이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거렸다.

다양한 직업군을 체험하기 위해 온 고등학생들부터 취업준비생, 제2의 직장을 찾고 있는 중장년 등 10대부터 60대까지 1100여명(주최측 추산)의 구직자들이 찾았다.

이번 행사는 전남도와 강진·해남·무안·영광·진도군,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광주지방보훈청, 목포고용노동지청 등 11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행사장에는 기업 홍보관, 직업·취업 상담을 받는 취업 컨설팅관, 직접 이력서를 바탕으로 면접을 진행하는 현장채용관, 정책 홍보관 등 부스가 마련됐다.

전남도 내 조선업·식품 제조업·관광숙박업·화학 등 산업 분야 28개 지역 기업들도 148명에게 현장 채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참여했다. 현장채용관 부스마다 이력서를 갖고 취업 면접을 보려는 긴 줄이 쏘고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을지 긴장된 모습으로 채용관을 찾은 취준생들 모습도 엿볼 수 있었다.

취업준비생들은 요즘같은 불경기엔 취업 정보를 얻고 면접을 볼 수 있는 이번 박람회가 한발짝 취업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라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 안양에서 온 심동우(28)씨는 (주)동원

에프앤비에 입사하고 싶어 이날 박람회를 찾아 면접을 봤다. 심씨는 “그동안 회사 채용을 기다리면서 부담되고 떨렸는데, 박람회에서 여러 정보도 얻고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귀한 자리였다”며 “제 진심을 표현했고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웃어보였다.

유승영(24)씨는 목포과학교대를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기 전 취업 정보를 얻기 위해 박람회를 찾았다. 현장에서 이력서를 뽑은 유씨는 “인터넷에서는 얻기 힘든 정보를 기업 담당자들과 직접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라며 “방향성을 잘 잡고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싶다”고 기대감을 비쳤다.

현장 채용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HD현대상호, 한전KDN은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전략’이라는 주제로 채용설명회를 열었고 이력서 사진 촬영, 힐링 상담 테라피, 퍼스널 컬러 진단 등의 체험 부스에는 긴 줄이 이어졌다.

광주직업학교를 다니면서 제2의 직장을 준비하는 김모(57)씨는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지만 중장년이라 취업이 더 어렵다”며 “전기회사 두 곳 면접을 보려고 왔다. 그동안 성실히 일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박대진(64)씨도 “혼자서는 지역 회사들을 다 찾아보기 힘들데 지역 박람회에서는 많은 지역 기업들을 만날 수 있었다. 다음에는 지자체들이 더 많이 홍보해서 여러 기업들을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30일 목포실내체육관에서 개막한 2025 상반기 전남일자리 박람회장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찾은 많은 구직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안도, 해남, 담양, 고흥 등 전남 지역 특성하고 학생들도 단체로 행사장을 둘러보며 취업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해남송지고에서 온 장유정·홍정인(16)양은 “대한조선 부스에서 직원분들께 배를 만드는 기술과 수출·수입 등 평소 궁금했던 것들을 묻고 정보를 얻

었다”며 “아직 1학년이지만 많은 직업군을 알고 가고 싶다”고 말했다.

황민찬(17·목포공업고 견학과 3년)군도 “한 자리에서 많은 기업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처음”이라며 “대학 진학만 생각하와서 기업들을 잘 모르는데, 오늘 상담받은 취업 준비 방법과 회사 트렌드를

토대로 차근차근 잘 준비해야겠다”고 말했다.

기업 담당자들도 일자리박람회를 반기는 입장이었다. 임보람 한전 KDN 대리는 “1시간에 50명이 다녀간 만큼 관심이 많아 보였다. 현장에서 취업 정보를 얻고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목포·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영원히 퇴근하지 못했다...전남 산재 사망률 ‘전국 두번째’

지난해 만 명당 0.65명 달해 유족 급여 48명·광주 15명

전남의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인율(산재보험 가입 대상자 1만명 가운데 사고사망자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2024년 유족 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지역 사고사망인율은 0.65‰(퍼밀리아드)로, 전북(0.66‰)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전국 평균(0.39‰)보다는 두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이어 강원(0.58‰), 경북(0.54‰), 경남·충북(0.52‰)이 뒤를 이었다.

전남은 전년 대비 사고사망인율 증감율도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지난 2023년 대비 전남의 사고사망인율은 0.09‰p 늘어 울산(+0.29‰p)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감율이 높고, 경남(+0.04‰p), 경기(+0.02‰p)가 뒤를 이었다.

유족급여 승인을 받은 사고사망자수는 전남이 48명으로 전년보다 8명 증가했다. 지난 2023년 대비 사망자 증가수는 경기(20명), 울산(16명)에 이어 세 번째다. 이어 경남(7명), 서울(3명), 인천(1명)순이다.

광주는 사망자 15명으로 전년 대비 3명이 늘었으며 사고사망인율은 0.30‰로 전년보다 0.07‰p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도 산재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증

가했고, 작업장 사고 절반 이상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에서 유족급여 승인을 받은 산재 사망자는 827명으로, 전년(812명)보다 15명 늘었다.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업종은 건설업(328명), 이어 제조업(187명), 서비스업(145명) 순이었다.

사업장 규모 별로는 전체 사망자 827명 중 670명(81%)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고, 유형별로는 추락이 278명(33.6%), 끼임 97명(11.7%), 사업장 외 교통사고 87명(10.5%) 등이 주요 사망 원인으로 꼽혔다.

외국인 사망사고자는 전체의 12.3%를 차지하는 102명으로 전년 대비 17명이나 늘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전남 요란한 비...건조주의보 해제될 듯

오늘 10~50mm 예상

비가 내리면서 건조한 대기가 해소될 전망이다. 지난 30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일 전남해안과 전남동부내륙에는 10~50mm의 비가, 광주와 그밖의 전남내륙에는 10~40mm가 내린다.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10~20mm의 강한 비가 내린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비가 내리면서 30일 광주와 곡성, 구례, 여수, 광양, 순천, 장흥, 강진 등 전남동부에 내리던 건조주의보는 해제될 예정”이라고 했다.

강한 바람은 이어진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

에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

새벽부터 서해남부남쪽먼바다에 비가 초속 9~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도 1.5~3.5m로 매우 높게 일어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가 필요하다.

낮부터는 평년(최저 8~13도, 최고 19~2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이 예상된다.

1일 아침 최저기온은 10~15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에 분포하겠다.

1일 밤 그친 비는 3일 오전부터 밤사이 가끔 내리겠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함께하는 100년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8%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 로 지 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 동 센 트 럽 지 점 062)361-4472~4	유 덕 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 아 지 동 차 지 점 062)385-4977~8	애 나 로 마 트 동 립 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